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미 증시, CPI 예상치 부합에도 숨고르기 양상 보이며 혼조 마감

미국 증시 리뷰

13일(수) 미국 증시는 10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며 중립 수준의 재료로 작용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랠리가 일부 숨고르기 양상을 보인 영향으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다우 +0.11%, S&P500 +0.02%, 나스닥 -0.26%)

미국 10월 CPI는 전년 대비 2.6% 상승하며 컨센서스(2.6%)와 부합, 전월비로도 0.2% 상승하며 컨센서스(0.2%)와 부합. 변동성이 큰 식음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또한 전년대비 3.3%, 전월 대비 0.3%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수치를 기록.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10월 주거비는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전월치(0.2%)에 비해 상승 속도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10월 물가 상승의 절반은 주거비가 차지하였음.

또한, 전월비 기준 10월 식품가격(0.2%), 에너지(0.0%), 신차(0.0%), 중고차 및 트럭(2.7%), 교통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가격(0.4%) 등의 품목은 보합 또는 상승하였음. 한편, 10월 시간당 평균 실질임금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0.1% 상승하며 전월치(0.2%)에 비해 상승세는 소폭 둔화, 전년대비 기준으로는 1.4% 상승. 10월 주간 평균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대비로는 1.4% 상승.

로리 로건 델러스 연은 총재는 현재 연준의 이중 책무인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적에 근접했음에도 현시점부터는 점진적 금리 인하를 느린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 또한,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로의 진전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애플(+0.4%), 마이크로소프트(+0.51%), 아마존(+2.48%), 테슬라(+0.53%)는 상승한 반면 알파벳(-1.51%), 메타(-0.82%), 엔비디아(-1.38%)는 하락.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기소비재(+1.1%), 에너지(+0.8%), 부동산(+0.7%)은 상승한 반면 커뮤니케이션(-0.6%), IT(-0.3%), 헬스케어(-0.3%)는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의 10월 CPI는 전년대비 헤드라인, 코어 CPI 각각 2.6%와 3.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와 부합한 수치 기록.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아도 주거비가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전월치(0.2%)에 비해 상승 속도가 가팔라진 점이 신경쓰이지만 대체로 다른 항목들은 예상치와 부합한 수준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

또한, 연준이 중시하는 PCE 물가지수는 CPI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달 말 발표될 PCE 물가는 더 낮게 나올 가능성도 큼. 이에 따라 10월 CPI 발표 이후 페드워치상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전일 41.3% → 17.5%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사실상 12월 25bp 인하 가능성에 시장은 무게를 두는 모습.

다만, 금번 CPI 발표 자체는 시장에 중립 수준의 재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살펴보아도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하지만 대체로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우려하며 통화정책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언급, 이로인해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자칫 예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상존. 이러한 연준위원들의 스탠스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와 함께 내년도까지 물가 지표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커질 수 있음을 시사.

또한, 물가지표보다는 여전히 트럼프 변수가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흐름이 지속. 특히, 이 날 공식적으로 공화당은 의회 선거에서 상원과 함께 하원에서도 과반인 218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정. 레드 웨이브가 현실화되며 트럼프 당선인은 감세, 이민자 추방, 규제 완화,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민주당 견제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상황.

국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레드 스위프트로 인한 트럼프발 정책 불확실성이 하방 압력을 더 가중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필요. 특히, 최근 국내 증시의 급락 요인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 상승과 정책 불확실성(보편 관세, 반도체 칩소법 등) 및 이익 전망치 하향으로 인한 반도체 약세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

물론,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후행 PBR은 0.85배를 기록하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저점 수준에 진입해있으며, RSI, ADR 등 기타 기술적 지표상으로도 낙폭과대 수준에 진입한 것은 자명해보임.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볼 수 있는 수준이나 추세적 반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은 1,400원 선을 상회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진정이 선결되어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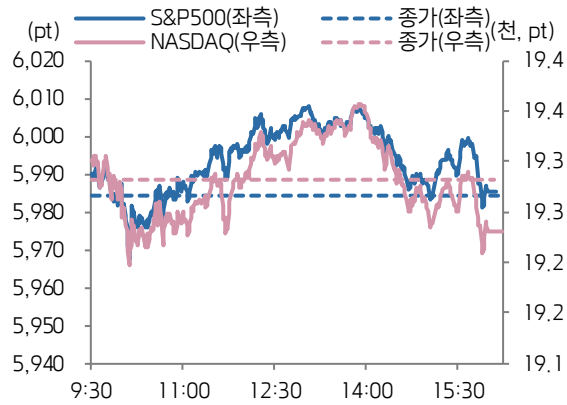
이후 확인해야할 사항은 국내 증시의 이익 추정치 하향이 일단락되는지를 지켜보아야할 필요.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은 지난 9월 초 고점(327.4조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 314.4조원까지 하향 조정된 상태. 약 13조원의 영업이익 하락분 중 90%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이익 조정분이라는 점을 감안시 결국 반도체 약세가 국내 증시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 가능.

결론적으로, 외국인 수급 이탈을 야기하는 원달러 환율이 진정된다는 가정하에 11월 20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12월 1일 국내 수출, 12월 3일 ISM 제조업 PMI 등 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수출업체 이익과 연관도가 높은 이벤트를 대기하며 현시점부터는 분할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금리 레벨 부담, 원달러 환율 1,400원 상향 돌파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수급 이탈이 가속화된 가운데 이익 전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삼성전자 등 반도체가 약세를 보인 결과 양 지수는 급락 마감 (코스피 -2.64%, 코스닥 -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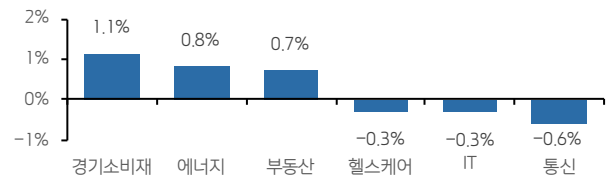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CPI가 중립 수준의 재료로 작용한 가운데 낙폭과대 인식 속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다만,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외국인 수급은 결국 원달러 환율에 기인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하향하는 움직임을 보일지에 주목할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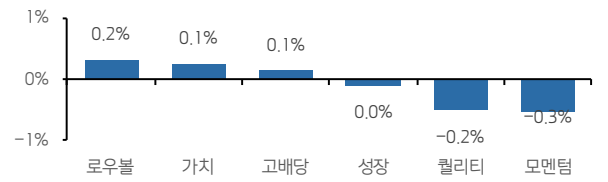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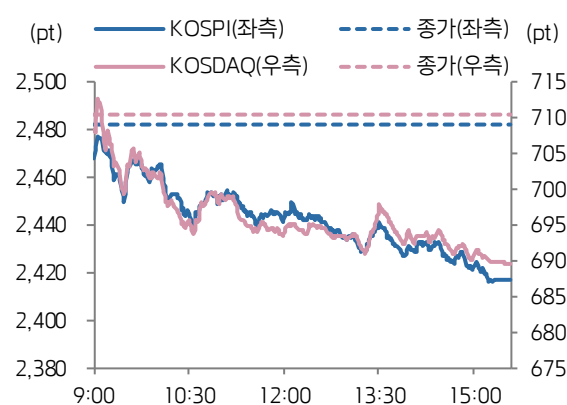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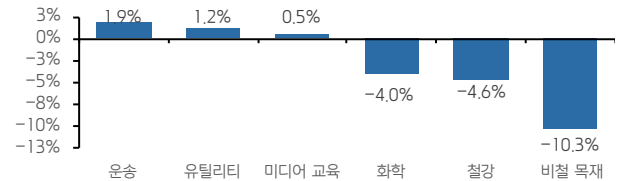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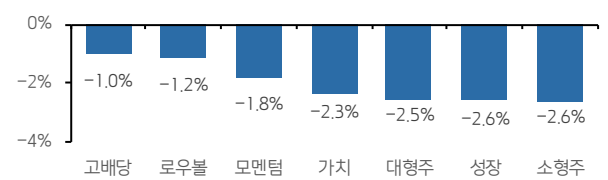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증가	DTD(%)	YTD(%)	종목	증가	DTD(%)	YTD(%)
애플	225.12	+0.4%	+17.5%	GM	57.71	+0.52%	+61.97%
마이크로소프트	425.20	+0.51%	+13.69%	일라이릴리	811.81	-0.86%	+39.94%
알파벳	178.88	-1.51%	+28.37%	월마트	85.50	+0.6%	+64.28%
메타	580.00	-0.82%	+64.35%	JP모건	241.16	+0.67%	+45.16%
아마존	214.10	+2.48%	+40.91%	엑손모빌	121.47	+0.93%	+24.61%
테슬라	330.24	+0.53%	+32.9%	세브론	158.72	+2.21%	+9.87%
엔비디아	146.25	-1.38%	+195.38%	제너럴일렉트릭	85.50	+0.6%	+64.3%
브로드컴	173.58	-1.5%	+57.18%	캐터필러	387.07	-1.51%	+33.01%
AMD	139.30	-3.01%	-5.5%	보잉	139.97	-3.58%	-46.3%
마이크론	99.92	-4.02%	+17.43%	넥스트에라	74.24	+0%	+24.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417.08	-2.64%	-8.97%	USD/KRW	1,397.50	-0.88%	+8.5%	
코스피200	318.84	-2.59%	-10.94%	달러 지수	106.48	+0.43%	+5.08%	
코스닥	689.65	-2.94%	-20.42%	EUR/USD	1.06	-0.55%	-4.29%	
코스닥150	1,193.06	-3.2%	-14.38%	USD/CNH	7.24	-0.02%	+1.63%	
S&P500	5,985.38	+0.02%	+25.48%	USD/JPY	155.46	+0.55%	+10.22%	
NASDAQ	19,230.74	-0.26%	+28.11%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3,958.19	+0.11%	+16.63%	국고채 3년	2.942	+4.2bp	-20.3bp	
VIX	14.01	-4.76%	+12.53%	국고채 10년	3.062	+4.7bp	-11.3bp	
러셀2000	2,369.37	-0.94%	+16.89%	미국 국채 2년	4.277	-6.3bp	+2.7bp	
필라. 반도체	5,006.29	-2%	+19.9%	미국 국채 10년	4.447	+2bp	+56.8bp	
다우 운송	17,538.54	+0.89%	+10.31%	미국 국채 30년	4.634	+6.6bp	+60.6bp	
상해종합	3,439.28	+0.51%	+15.61%	독일 국채 10년	2.390	+2.8bp	+36.6bp	
항생 H	7,130.93	+0.05%	+23.62%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690.95	-1.25%	+7.55%	WTI	68.43	+0.46%	-2.66%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2.28	+0.54%	-6.18%
Eurostoxx50	4,740.34	-0.09%	+4.84%	금	2,586.50	-0.76%	+19.74%	
MSCI 전세계 지수	856.84	-0.73%	+17.86%	은	30.66	-0.31%	+27.31%	
MSCI DM 지수	3,773.23	-0.58%	+19.06%	구리	408.30	-1.29%	+4.95%	
MSCI EM 지수	1,103.19	-2.02%	+7.76%	BDI	1,634.00	+4.88%	-21.97%	
MSCI 한국 ETF	55.89	-1.7%	-14.72%	옥수수	437.25	-0.68%	-14.97%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40.75	-2.08%	-19.17%
비트코인	88,777.23	+0.52%	+108.85%	대두	1,006.50	-0.4%	-19.66%	
이더리움	3,148.25	-4.04%	+37.94%	커피	271.20	+3.08%	+42.7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